



# 마음이 아픈 청춘에 숲은 藥이다

## 공부 스트레스·학교폭력에 힘들다면 ... 숲에 가서 답을 찾아보자

### ■ 서부지방산림청, 유치원·초등학교생 ‘산림 체험 프로그램’ ‘숲 체험’ 스트레스 날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

최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의 하나로 ‘산림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왕따’ 등 학교 폭력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숲에 가서 그 답을 찾아보자’는 것이 산림교육의 핵심이다. 숲을 체험함으로써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학교폭력, 왕따 등 성적 외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0대 청소년 자살률만 보더라도 2011년, 청소년 10만명 당 5.58명에, 자살 증가율도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로 자살 증가율도 빠른 편이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도 해마다 늘어나 지금은 전체 아동의 25%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찾아 시골 학교로 이사를 가는 모습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청소년 자살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다르지만 근본 원인은 결국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 비관, 환경오염 등 어른들이 만들어낸 문제로 볼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교육’이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점차 증가하는 산림 교육의 수요에 따라 지난 2012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산림 교육 활성화의 배경엔 숲은 훌륭한 교육 소재와 장난감으로 가득 찬 청소년 교육장소이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일찍이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 위에서 그리고 들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라”며 자연에서의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독일의 페터 헤르너 박사 연구결과, 숲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보다 창조력과 상상력, 운동력과 학습 참여도 및 면역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조사결과, 숲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보다 신체 발달이나 사회성, 창의성 등에서 20% 이상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서부지방산림청도 산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경남 함양에 ‘지리산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순천 봉화산 자락과 전북 무주 백두대간에서 유아 숲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체험을 조성하고 있고, 매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 수업시간을 산림 체험 등 산림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는 등 산림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등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숲으로 와서 맘껏 뛰어놀며 몸과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다”면서 “산림청에서도 어린이와 학생들이 숲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숲을 잘 가꾸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아픈 지구! 내 손으로 고쳐주기! 청소년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생활 주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생각을 공모하는 ‘2014 청소년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픈 지구! 내 손으로 고쳐주기!’를 주제로 열리며, 다음달 25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 아토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도시 소음 줄이기, 자원의 재사용 등 일상 생활에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가대상은 4~6학년의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교생으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팀으로 참가할 경우 동일한 학교와 학년의 학생으로 최대 3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는 공모전 누리집(ecotechfair.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에 8월 25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이메일(eco-idea@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10일 공모전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개 팀 또는 개인에게 총 10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지도 교사에게는 총 43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